



## 단 브라우닝(Don S. Browning)의 목회(실천)신학 방법론

Don Browning's Pastoral/Practical Theological Method

---

저자 (Authors)	권수영 Soo-Young Kwon
출처 (Source)	<a href="#">신학논단 43</a> , 2006.2, 695-724(30 pages) <a href="#">Theological Forum 43</a> , 2006.2, 695-724(30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a>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Theology & the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15083">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15083</a>
APA Style	권수영 (2006). 단 브라우닝(Don S. Browning)의 목회(실천)신학 방법론. <i>신학논단</i> , 43, 695-724
이용정보 (Accessed)	연세대학교 165.132.5.*** 2020/09/03 21:33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단 브라우닝(Don S. Browning)의 목회 (실천)신학 방법론

권수영\*

일반적으로 신학의 분류법은 자주 이론신학과 실천신학으로 나뉘어 진다. 어쩌면 이러한 신학의 분류는 암암리에 실천이 없는 이론신학이나 이론이 전혀 없는 실천신학도 가능하리라는 이분법적인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진다. 이러한 이론과 실천의 괴리는 목회자들에까지 연결된다. 신학(이론)은 신학교에서 하고, 목회(실천)는 졸업 후 현장에서 하는 것이라는 선형적(linear) 사고가 그것이다. 목회자들에게 신학은 신학교 시절에 이미 한(already done) 것이거나 이제는 불필요한(unnecessary) 과정으로 치부된다. 과연 그러한가?

이러한 연유에서 목회자들은 졸업하면 다시 신학교나 교육기관을 찾는 이유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정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 한다.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기술을 배울 필요가 생겨난다. 목회상담이 그것이다. 목회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위기와 고통을 위로하고 상담할 필요가 생겼는데, 이 때 목회상담이라는 도구는 실로 적절한 방법론적인 해결점을 제시하는 듯 보인다. 그래서 목회상담을 배우기 위해 정신분석에 입문하고, 가족

---

\* 연세대학교 교수, 목회상담학.

치료를 배우고 인지치료 등을 배워서 목회현장으로 돌아간다. 이 때 목회상담은 자칫하면 신학(이론)과는 전혀 상관없이 소개되고, 그저 임상적인 심리학 체계를 교회라는 목회현장으로 옮겨놓는 꼴이 된다. 목회상담이라는 새롭게 부각되는 실천신학의 분야도 알고 보면 실천을 빌미로 한 타 학문의 무분별한 접목일 때가 많다. 목회자에게 정신분석 방법론과 가족치료를 소개하는 일이 목회상담이라면 신학교에서 교육할 필요가 없다. 최근 목회상담이 교육현장이나 목회현장에서 공히 여러 가지 관심을 끄는 일은 그간 이론과 실천이 분리되어 왔던 목회현장으로부터 생겨난 새로운 자각과 필요에 의한 자생적인 운동처럼 보인다. 하지만 목회상담이 신학과 상관없는 실천방안으로 제공된다면, 머지않아 목회자들은 목회상담보다 가족치료센터나 심리치료연구원에서의 보다 임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과연 차세대에 필요 한 신학은 무엇일까? 이론과 실천을 끓어내는 신학의 방법론을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소개하고 목회현장 뿐 아니라 우리의 사회나 문화 전반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을까? 이 논문은 이러한 관심에서 이론과 실천의 선형적 인과관계를 넘어서 보다 해석학적인 순환에 관심하면서 목회 및 실천신학방법론을 전개한 단 브라우닝(Don S. Browning)의 방법론을 소개하고,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한국적인 현장에서의 암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I. 브라우닝의 생애와 경력

단 브라우닝(Don S. Browning)은 미국 중부 미조리(Missouri) 주 트렌顿(Trenton)에서 태어났다. 같은 주에 있는 감리교대학(Central Methodist College)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의 신학대학원에서 교역학 학사(B.D.) 및 석사(M.A.)를 받았고, 1964년 철학박사(Ph.D.)를 취득하였다. 이 후 스코틀랜드의 글랫

스고우 대학교(University of Glasgow)를 비롯한 세 학교로부터 명예 박사 학위를 받기도 하였다.

브라우닝은 시워드 힐트너(Seward Hiltner)가 시카고대학교에서 11년 간(1950-1961) 가르치는 동안 그에게 사사하였다. 비록 힐트너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으로 옮긴 이후에 학위를 마쳤지만, 1966년에 출판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속죄와 심리치료》(*Atonement and Psychotherapy*)를 보면 힐트너의 전통적인 목회신학적 방법론이 가감 없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브라우닝은 심리치료적 심리학으로부터 오는 통찰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해를 명료하게 하는 데 상관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1)</sup> 학위 과정 중에 미조리 주와 일리노이 주에서 목회와 필립스대학교의 신학대학원 등에서 강의하였고, 학위를 마친 후 모교인 시카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신학 강사(instructor in pastoral theology)라는 직함으로 목회신학자의 길을 걷는다.

시카고대학교에서 재직하면서 몇 번에 걸친 교수 직함의 변화는 그의 방법론적인 변천사를 암묵적으로 드러낸다. 그는 초기 ‘목회신학’(pastoral theology) 교수에서 70년대 말부터는 ‘종교와 심리학 연구’(Religion and Psychological Studies) 교수로, 93년부터는 ‘종교윤리와 사회과학’(Religious Ethics and the Social Sciences)의 석좌교수로 있다가 2002년 은퇴하였다. 7권의 저서를 비롯하여 2권의 공저와 수많은 연구 및 출판기획의 편집책임자 역할을 하는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그의 방법론적 변화를 공고히 드러내는 일일 것이다. 그의 목회신학의 윤리적 강조점이 드러나는 초기 저작들<sup>2)</sup>과 다양한 심리학과 신학

1) Don S. Browning, *Atonement and Psychotherap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6을 참조하라.

2) 그의 초기 목회신학적 관심의 저작들로는 *Atonement and Psychotherapy*를 비롯하여, *Generative Man: Psychoanalytic Perspectives*. New York: Delta, 1975; *The Moral Context of Pastoral Care*. Philadelphia: Westminster, 1976; *Pluralism and*

의 비판적 대화를 추구하고 전통적인 목회신학 방법론에 비하여 보다 공적인 의미(public meaning)를 만들어내는 실천신학적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sup>3)</sup>, 보다 구체적인 실천의 일환으로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종교, 문화와 가족”(Religion, Culture, and Family)이라는 백만불이 넘는 예산규모의 거대한 실천신학 연구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기획하면서 10권의 책들을 편집하여 미국의 인문, 사회학계의 주목을 받았다.<sup>4)</sup> 이 후에도 그의 가족연구(Family Project)는 비디오 다큐멘터

---

*Personality: William James and Some Contemporary Cultures of Psychology.* Lewisburg, PA: Bucknell University Press, 1980; *Religious Ethics and Pastoral Care.* Philadelphia: Fortress, 1983; Don S. Browning (Ed.), *Practical Theology: The Emerging Field in Theology, Church, and World.*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3 등의 저작을 들 수 있겠다.

- 3) 보다 적극적인 사회과학들과의 비판적 대화를 중심으로 실천신학적 방법론을 추구하는 시기의 저작들로는 *Religious Thought and The Modern Psychologies.* Minneapolis: Fortress, 1987(이 책은 2004년에 Terry Cooper와 함께 공저로 다시 개정판을 내었다); “Mapping the Terrain of Pastoral Theology: Toward a Practical Theology of Care,” *Pastoral psychology* 36 (1987): 10-28; “Pastoral Care and the Study of the Congregation,” in J. C. Hough, Jr. and B. Wheeler, *Beyond Clericalism: The Congregation as a Focus for Theological Education* (pp. 108-118). Atlanta, Georgia: Scholars Press, 1988; *A Fundamental Practical Theology.* Fortress Press, 1991 등을 들 수 있다.
- 4) 가족연구와 관련된 그의 실천신학적 저작으로는 Don S. Browning, B. J. Miller-McLemore, P. D. Couture, K. B. Lyon, and R. M. Franklin, *From Culture Wars to Common Ground: Religion and the American Family Debat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7, 2000; Don S. Browning & Gloria Rodriguez, *Reweaving the Social Tapestry: Toward a Public Philosophy and Policy of Families.* New York: W.W. Norton, Inc., 2002; Katherine Anderson, Don Browning, and Brian Boyer, eds. *Marriage—Just a Piece of Paper.*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2002; John Wall, Don Browning, William Doherty, and Stephen Post, eds. *Marriage, Health, and the Professions.*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2002; *Marriage and Modernization: How Globalization and Modernity Threaten Marriage and How it must be Reformed to Meet the Challenge.* Grand Rapids: Eerdmans, 2003 등을 보라.

리로 제작되어 2002년에 미국 전역과 캐나다의 공영방송(PBS)에 방영 되기도 하였다. 유럽의 학자들과도 교류하면서 “실천신학: 국제 시리즈” (Practical Theology: An International Series)의 공동편집자로 공헌하고 있다.

2003년 미국 아틀란타에서 열린 미국종교학회(American Academy of Religion)에서는 브라우닝의 은퇴를 기념하는 심포지움을 열었다. 5명의 학자들이 그의 방법론과 연구 과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브라우닝이 논찬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필자는 준비위원회로부터 5명의 발제자 가운데 하나로 초청되어 심포지움 기획에 참여하였다. 필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심포지움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이 글에서 심포지움을 위한 필자의 비판적 고찰과 다른 발제자의 고찰 및 브라우닝의 의견을 담고자 한다.

## II. 브라우닝의 방법론과 연구주제

### 1. 수정된 상관관계방법: 힐트너의 신학방법론을 넘어서

1980년 교수직을 은퇴하는 시워드 힐트너를 기념하기 위해서 같은 해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그에게 학문적 영향을 받은 24명의 목회신학자들의 작은 연구모임이 개최되었다. 학회는 “힐트너를 기념하는 목회신학연구회”(Colloquy in Pastoral Theology in Honor of Seward Hiltner)였다. 이 곳에서 논의된 대표적인 학자들의 논문들은 힐트너가 주축이 되어 1950년에 만들어진 학술잡지인 《목회심리학》(Pastoral Psychology)의 1980년 가을호에 실려 있다. 이 특집호에 “다원화시대의 목회신학”(Pastoral Theology in a Pluralistic Age)이라는 브라우닝의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이 논문은 자신의 스승인 힐트너의 방법론에 대한 조용한 개정을 시도하는 첫 시도

로 여겨진다.<sup>5)</sup> 이 때 이미 그는 시카고대학교에서 목회신학이 아닌 “종교와 심리학 연구”라는 분야의 교수로 목회신학의 새로운 학문적인 재편성을 진행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목회신학 방법론을 재평가하는 1980년에 제시된 브라우닝의 목회신학관은 먼저 다양한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가설들이 난무하는 다원화된 환경 안에서 목회신학의 과제는 신학적 윤리와 사회과학을 한데 묶어 인간적인 삶의 주기(life cycle)에 규범적 비전(normative vision)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역설한다. 즉, 목회신학이 인간의 삶의 주기에 나타나는 주제들(예를 들어 사춘기, 성, 결혼, 가족, 노인문제, 죽음 등)에 개입하는 기술적인 측면에는 큰 발전을 도모하여 왔으나, 이러한 주기적 삶의 이정표에 보다 규범적이고 신학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일은 도외시하여 왔다고 지적한 것이다.

구체적인 목회신학방법론의 개정을 위하여 그는 4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 번째로 목회신학은 유대 기독교 전통의 주요 주제들의 철학적 성찰로 이해되어야 하고, 이 주제는 인간적 삶의 주기의 규범적인 비전을 위한 암시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에 브라우닝은 텔리히가 제시하는 상관관계방법(correlational method)에 대한 제한점을 지적한다. 텔리히의 방법론은 삼위일체나 기독론 등과 같이 신학적인 질문에 신학적인 응답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구조를 넘어서 그가 거의 동일시 하였던 조직신학과 문화신학을 연결하려는 시도에서 기초되었다. 다시 말해 신학적인 문제가 아닌, 인간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에서 오는 실존의 문제들을 기독교적 계시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상관관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정신분석과 같은 다른 인간이해와도 폭넓게 대화하는 넓이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서구 문화적 부산물인 정신분석학은 인간 실존의 죄된, 혹은 타락된 상태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된다

---

5) Don S. Browning, “Pastoral Theology in a Pluralistic Age,” *Pastoral Psychology* 29 (Fall 1980): 24–35.

는 것이다. 그러나 틸리히의 방법론에 있어서 정신분석학의 인간 이해가 인간의 실존적 “물음”에 대한 보조적 자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 본성의 핵심적인 본질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해답”的 측면으로서는 어떠한 기능도 할 수 없게 된다. 틸리히의 뒤를 이어 시카고대학 교의 조직신학교수가 된 데이비드 트레이시(David Tracy)는 인간의 문화적인 접근이 실존에 대한 질문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해답을 제시하는데에도 방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의문을 가지고 틸리히의 방법론을 개정한 수정된 상관관계방법(revised correlational method)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신학은 “다른 모든 대답들”(all other answers)과도 비판적으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브라우닝은 트레이시의 수정된 상관관계방법을 목회신학에 차용할 것을 제시한다. 즉 동일한 인간경험에 대하여 기독교신앙에 등장하는 신학적인 해답을 다양한 학문적 관점, 즉 인간과학과 사회과학이 제시하는 대답들과 비판적 연관을 시도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목회신학의 공적인 성격이다. 목회신학은 역사적 유대 기독교 전통의 명시적인 신앙 주제 뿐 아니라 동일한 경험의 종교적 차원의 돌봄의 연관성을 식별하고 공고히 하는 데 노력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일반 치료사와 원목의 차이가 공히 직업적 차원에서의 “돌봄”을 추구한다고 할 때에 원목의 돌봄은 어떠한 공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단순히 기독교신앙을 가진 원목의 돌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효한 측면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돌봄은 일반적인 돌봄이 가질 수 없는 부가적인 지원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한계경험(limit experiences)은 한계언어(limit language)를 필요로 하는데, 종교적 언어야 말로 인간의 한계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도구이기에 기독교적 규범의 가치는 기독교인들만이 아닌 누구에게나 일반적인 공적인 의미(public meaning)를 지니고 있느냐의 문제로 전환된다. 결국 브라우닝의 방법론적 변천사에 면면히 흐르는 기본 정신은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목회신학은 반드시

공적이고 철학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적 토대는 그의 목회신학이 ‘실천신학’(practical theology)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된다. 물론 단순히 학문의 명칭만 바뀐 것은 아니고, 방법론을 구성하는 뼈대와 실천의 범위를 지정하는 의미 있는 변환이다.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목회신학은 종교 윤리적 규범과 근본적으로 관련된 신학적 윤리의 한 표현으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 역시 그의 지속적인 연구관심과 저술에 드러나는 사상적인 근간이다. 예를 들어 『목회적 돌봄의 도덕적 정황』(*Moral Context of Pastoral Care*, 1976), 『종교윤리와 목회적 돌봄』(*Religious Ethics and Pastoral Care*, 1983) 등과 같은 초기 저작 뿐 아니라, 그가 가장 최근에 편집한 『결혼, 그저 종이쪽지인가』(*Marriage: Just a Piece of Paper*, 2002) 등에도 잘 드러난다. 그에게 목회적 돌봄은 늘 “종교적”일 뿐 아니라, 하나의 “윤리적 과제”라는 점은 가장 쉽게 잊혀지므로 오히려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마지막으로 브라우닝에게 목회신학은 내담자나 교인을 향한 조급한 충고나 단순한 해결책 제시가 아니다. 목회신학은 인간 행위에 관한 신학 윤리적인 관점들과 심리 역동적 관점들을 연결시키는 실제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구체화하고, 어떠한 시점에 실행할지 등에 깊이 관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방법론은 수정된 상관관계방법에서 신학적인 해답과 다양한 문화적 접근이 제시하는 해답들을 어떻게 연관시키는가의 문제에 대한 윤리적 접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한다. 구체적인 방법론적인 방안으로 실천적 도덕적 사고(practical moral thinking)의 다섯 가지 단계를 만들어 낸다. 『종교윤리와 목회적 돌봄』(1983)에서 제시된 이 성찰의 단계들은 후에 여러 저작들에서 그의 기본적인 방법론적인 틀로서 다양한 타학문과의 대화에서 사용되어진다.

1980년 헬트너의 은퇴를 기념하여 제시된 브라우닝의 목회신학관은 여러 헬트너의 방법론을 충실히 발전시키려는 학자들에게는 의문점 을 던져주었다. 예를 들어, 로드니 헌터(Rodney Hunter)는 하나의 학문

으로서의 목회신학에 대한 질문들을 학문의 사회적 기관적 정의(social and institutional definition)와 이론적 방법론적 정의(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definition)로 나누어 보면서, 브라우닝의 새로운 정의는 사회적 기관적 정의의 측면에서 신학교와 교회에서 통용될 만한 정의를 넘어서 세속적인 대학을 아우르는 보다 큰 범위를 가진 정의를 택함으로 목회신학의 위치를 보다 넓은 “공적인 담론”(public discourse)의 영역으로 확대하였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론적 방법론적 정의에 있어서 헌터는 브라우닝의 윤리적 관심이 목회신학의 전면(foreground)에 나서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배경(background)이 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의문점을 제시한다. 힐트너의 관점에서 목회신학은 신학의 기본주제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대화, 수정, 보완, 재해석을 추구하는 신학적 성찰이라는 점에서 윤리는 전면에 나설 수는 없다는 것이다. 헌터는 목회신학의 신학적 성찰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목회적 실천이 신학적인 무엇인가를 담보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실천이 어떻게 학문적인 방법론, 즉 이론화될 수 있겠는가의 문제이다. 헌터는 브라우닝의 새로운 방법론적인 개정을 겨냥하여 목회신학이란 규범적인 지식(normative knowledge)이 아니라 실천적인 지식(practical knowledge)의 한 형태라고 주장한다. 목회신학이 전통적인 신학에서와 같이 설명적 지식(descriptive knowledge)을 추구하는 것 이거나 규범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실천적이고 신학적인 지식(practical theological knowledge)을 개발하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목회신학이 추구하는 실제적 지식은 “경험적 지혜”(wisdom of experience)의 문제이지 간단한 습득을 위한 기법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적 지식은 ‘빵을 만들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하는 간단한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환자를 돌볼 것인가’ 혹은 ‘어떻게 심리치료를 잘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와 같이 복잡한 문제이다. 실제적 지식은 “경험을 통하여”(through experience) 얻어지는 것이고, 목회신학은 학문적인 실제에 자신을 투

신하는 경험을 통하여 획득되는 것이므로 목회신학은 늘 사례와 함께 발전한다고 지적한다. 헌터는 제대로 된 실제적 지식의 추구는 설명적 지식과 규범적 지식의 밀접한 연관을 가져온다고 보고, 브라우닝의 목회신학의 전면에 나서는 규범적 접근을 경계하고자 하였다.<sup>6)</sup> 그러나 아 이러니하게도 누구보다도 이러한 실천적 지식에 대한 방법론적인 토대를 공고히 한 학자는 브라우닝이었다.

## 2. 실천신학이라는 새로운 틀: 실천철학적(해석학적) 접근

브라우닝의 목회신학 방법론은 보다 다양한 학문들과 학제적 (interdisciplinary) 접근을 시도하면서, 신학 전반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갖도록 진행되었다. 그가 1991년 『근본적인 실천신학』(*A Fundamental Practical Theology*)을 출판할 즈음에는 실천에 중심을 두는 신학방법론에 대한 성찰과 함께 신학 전반의 재구성을 제시한다. 브라우닝은 실천철학(practical philosophies)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해석학적 틀에서 신학의 지평이 확장되기를 제안하면서, 이러한 실천철학의 틀 안에서 모든 신학은 근본적으로 실천신학적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주장한 것이다. 이 실천신학에 대한 새로운 전망은 그의 방법론이 보다 공적인 담론을 만들어 내는 기초가 된다. 이는 그가 책의 초두에 밝힌 저작의 이유에서 분명해 진다. 브라우닝은 자신의 “이 책이 종교적 공동체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in what way do religious communities make sense?)를 묻는 누구나를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 그는 그의 실천신학이 신앙인과 신학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비종교인들과 철학자들이 이 책을 진지하게 읽기를 원한다.”<sup>7)</sup> 그의 새로운 방법론적 제안은 종교적 공동체가 합리적이 되는

6) Rodney J. Hunter, “The Future of Pastoral Theology,” *Pastoral Psychology* 29 (Fall 1980): 58-69를 참조하라.

7) Don S. Browning, *A Fundamental Practical Theology: Descriptive and Strategic*

(make sense) 문제가 그저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넘어서 “실천이성”(practical reason)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이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브라우닝의 실천신학 방법론에 있어서 주도적인 상호 학문적 대화 파트너는 다름 아닌 실천철학(practical philosophies)이다. 실천철학이란 “실천적 지혜”(practical wisdom),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지(實踐知; *phronesis*)와 “실천이성”(practical reason)의 전통을 잇는 철학들을 통칭하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실천철학의 전통은 아리스토텔레스, 어거스틴, 아퀴나스, 흄, 칸트로부터 윌리암 제임스와 존 듀이 등과 같은 미국 실용주의 철학자들, 리차드 로티, 리차드 번스타인과 같은 신실용주의 철학자들(neopragmatists) 그리고 가다마와 하버마스와 같은 해석학자들에까지 연결된다.

브라우닝이 대화하고자 하는 실천철학들(practical philosophies)을 면밀히 고찰하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에 나타나는 실천지(實踐知; *phronesis*)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묻는 행복이란 일시적이거나 육체적인 상태로서의 행복이기 보다는 인간의 궁극적인 선(the ultimate good)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의미가 더욱 강하다. 인간의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의 문제는 무엇이 궁극적 선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기능인가의 문제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덕(virtue)스러운 그리고 이성적 원칙(rational principle)을 따르는 영혼(spirit)의 행위라고 본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은 그의 도덕론이다. 실천지(*phronesis*)는 그의 도덕론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누어 본 인간의 두 가지 덕목은 지성적 덕(intellectual virtue)과 도덕적 덕(moral virtue)이다. 지성적 덕은 유전적인 요소와 교육의 수행을 통하여 취득된다고 보고, 도덕적 덕은 모방

---

*Proposal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2.

(imitation)과 실습(practice)을 거쳐 습관(habit)을 이룰 때 지니게 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도덕적 덕의 형성과정에서 인간의 인격(character)이 만들어지는데, 인격의 상태는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나침, 부족, 그리고 중용의 세 가지 경향성과 관련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는 가장 덕스러운 인격은 중용의 도를 이루는 것이다. 위험에 처했을 때에 두려움이란 감정을 지나치게 나타내면 겁쟁이가 되고, 모자라면 명청이가 되며, 적당한 양의 두려움을 갖고 행동해야 용기 있는 자가 된다. 문제는 어느 만큼이 적당한 중용인가인데 이는 결코 수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중용을 위한 선택은 늘 “상황 중심적”(context-bound)이고, “시행착오”(trial and error)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천적 지혜(practical wisdom), 즉 실천지(phronesis)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시행착오”를 통한 실천적 지혜는 “순수이성”과 관련된 철학적 지혜와는 다르다. 타고난 것도 아니고, 교육을 통해 성취되는 것도 아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얻어지는 실천적 지식의 차원이다. 희랍철학의 세계와 같이 우리는 수많은 결정과 행위를 선택해야 하는 실제적인 세계와의 연관 가운데 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실천적이고 철학적인 지혜 모두를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브라우닝은 바로 이러한 실천적 지혜를 강조하는 철학적 전통 아래에서 실천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주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결국 브라우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지(phronesis)와 동의어로 쓰일 수 있는 다양한 개념들을 교차하여 방법론에 차용한다. 실천이성(practical reason), 실천(practice), 프라시스(praxis), 정의(justice), 대화(dialogue, conversation), 소통(communication) 등의 개념들이 그것이다. 그는 학문의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 해석학적 전통을 그대로 수용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철학자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 1833-1911)가 나누는 정신과학(Geisteswissenschaften)과 자연과학(Naturwissenschaften)의 분류이다. 전자는 철학, 심리학, 역사학, 사회

학, 법학 등 인간에게 주어진 의미의 해석(meaning to be interpreted)을 추구하는 정신의 학문을 통칭하고, 후자는 물리학, 생물학, 화학과 같이 인과관계의 설명(causal explanation)을 추구하는 학문을 통칭한다.

과학(science; Wissenschaft)은 원래 지식과 학문을 의미하는 용어였지만, 현대에는 과학은 보다 지엽적인 자연과학을 지시하는 축소된 의미로 쓰인다. 여러 가지 학문 중에서 자연과학이 가장 보편적인 힘을 가지게 되고, 19세기 후반에 자연과학은 그 영역을 확대하여 문화와 인간까지도 연구대상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생(生)철학자”라 불리던 달타이가 추구한 것은 ‘설명’의 학문인 과학으로는 개별적이며 일회적일 수 밖에 없는 ‘삶’을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보고 정신과학의 존립근거와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반성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달타이는 자연과학에 대한 단순한 반동에 그치지 않고, “삶은 삶 그 자체로 이해해야만 한다”는 명제 아래 인간의 삶에 다가가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 심화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분류 전통은 하이데거, 흑설, 가다머에 이어져 내려와 해석학적 틀을 구성한다. 정신 과학은 문화적 과학 혹은 도덕적 과학(cultural/moral sciences) 등으로 불리면서 인간이 다양한 의미를 해석하는 구조로서 인간의 상호대화(dialogue, conversation)의 모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달타이는 인간이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는 결국 상호대화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는 이해하려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 안에 자신을 대치하여 봄으로서 역사를 해석하는 공감적 이해의 방식을 가지게 된다. 달타이의 목표인 ‘삶’의 이해는 결국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된다. 달타이가 시작하고, 하이데거가 심화시킨 ‘철학적 해석학’은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Hans-Georg Gadamer; 1900-2002)에 의해 보다 구체화된다. 가다머는 이러한 상호대화에 개입되는 연구자의 전이해(fore-understanding)와 전개념(fore-concept)을 없앨 수 있거나 없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해석에 긍정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결국 자신의 전이해를 분명히 인식할 때 전이해와

대화하는 새로운 의미의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이해와 전개념은 인간의 이해작용의 근본적인 “지평”(地平)을 형성한다고 보고, 지평은 고정적이지 않고 역사적으로 변화되어감을 강조했다. 현재의 지평과 과거의 지평은 서로 만나고 대화하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지평은 과거에 대해서도 현재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지평이 상호대화하고 개방화되어가는 과정을 가다며는 “지평융합”(fusion of horizon)이라고 명명하였다.

브라우닝에게 모든 신학이 실천적이라는 명제는 신학의 방법론적인 바탕이 상호대화를 바탕으로 한 해석학적 틀이라는 점이다.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Truth and Method*)의 중심 주제는 이해(understanding)와 해석(interpretation)과 적용(application)은 구별될 수 없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모든 이해는 해석을 포함하고, 모든 해석은 적용을 포함한다. 가다머에 의하면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지(phronesis)의 분석이고, 우리에게 적용이 어떻게 해석적 경험에 중요한 부분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다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론을 이해 과정의 모델로 사용한다는 점에 입각하여, 브라우닝은 가다머 연구자들이 놓치기 쉬운 도덕적 관심을 견지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해석학적 과정은 결국 적용을 동반하는 도덕적 관심(moral concern with application)이라는 점이다.

가다머와 같은 해석학적 이론가들에게 실천적 지혜는 결코 이론과 실천을 시간차를 가지는 원인과 결과로 이분화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었다. 실천으로의 적용은 이해 이후에 생기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가 결코 그저 죽어가지도, 아니면 죽은 시체와 같이 현재를 구성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현재는 많은 부분에서 과거의 생산물이 된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지만, 과거는 현재에 들어와 살고 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역사인식(historical consciousness)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신학에도 과거의 종교적 사건이 현재와 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성서의 텍스트를

이해하고자 하는 과정도 아주 시작에서부터 실천을 매개로 한 “해석적” 작업이다. 가다머의 이론이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이론에서 실천으로, 혹은 텍스트에서 적용으로의 과정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theory-to-practice /text-to-application model of humanistic learning)이다. 해석학의 해석의 모형은 이미 이해와 해석에 단초를 제공하는 원초적 실천과 이론적 성찰, 그리고 성찰된 실천의 과정(radical practice-theory-practice model)이다. 가다머가 제시한 해석에 있어서의 지평융합(fusion of horizon)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실천적 물음 및 전이해들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이미 융합되어 있는 과정을 말한다. 이에 브라우닝은 지평 융합적 실천적 사고(practical thinking)를 제안하는 바, 전통적인 신학자들의 실천 신학관, 즉 철학적이고 역사적 신학에서 실천신학을 향해 가는 구조(from theory to practice)가 아닌, 실천에서 이론으로 그리고 다시 실천으로(from Practice to theory to practice) 진행되는 해석학적 재편성을 주장하고 있다.<sup>8)</sup>

### 3. 수정된 상관관계와 해석학적 통합

브라우닝의 수정된 혹은 비판적인 상관관계방법(revised/critical correlational method)에서 현대가 가지고 있는 대답들, 즉 현대과학(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을 모두 포함하여)이 가지고 있는 대답들이 가지는 의미(meaning)와도 대화하여야 하는 접근은 결국 해석학적 접근이 된다. 가다머의 말처럼 전이해(fores-understanding)를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이해, 해석과 적용의 지평융합적 작업인 것이다. 이 때의 지평융합은 과거의 진리를 현재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이미 과거의 전통과 해석들이 살아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

8) 위의 책, 39.

제시되는 브라우닝의 방법론에서 지평융합과 비판적인 상호연관적 접근이 가능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초기의 저작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가 목회적 돌봄에서 방법론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신학적 윤리적 과제이다. 그의 이 후 저작에서는 이러한 과제가 실천철학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해석학적 과제로 귀결된다. 예를 들어 초기에 드러난 비판적 상호연관의 과정은 5가지 차원의 실천적 도덕적 사고(practical moral thinking)를 통해 진행된다. 브라우닝은 한 출판사(Fortress Press)에서 “신학과 목회적 돌봄 시리즈”的 기획 및 편집장으로 14권의 책들을 출판하는 데에 관여한다. 이 때 시리즈의 하나로 출판한 자신의 책이 『종교윤리와 목회적 돌봄』(*Religious Ethics and Pastoral Care*)이다. 이 책에 소개된 그의 5가지 차원의 실천적 도덕적 사고는 ① 비전적/은유적 차원 (a visional/ metaphorical level), ② 의무론적 차원(an obligational level), ③ 성향-욕구의 차원(a tendency-need level), ④ 상황적 차원(a contextual level), ⑤ 규율-역할의 차원(a rule-role level)이다.

1단계인 비전적/은유적 차원의 예를 든다면, 인간은 누구나 어떤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의 삶과 행동의 장을 구성하는 가장 궁극적인 모습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이 때의 대답은 늘 은유의 차원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주목 한다. 주로 신화, 이야기나 담화 등에서 드러나는 심층적인 은유가 등장 한다. 물론 종교의 세계에서도 이러한 은유가 등장하지만, 심리학의 세계에서도 이러한 신화적 은유가 등장하기에 비판적인 상호연관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프로이트의 심리학에 등장하는 삶(eros)과 죽음(thanatos)의 본능에 대한 해석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브라우닝이 수정된 혹은 비판적 상관관계의 방법에서 대화의 파트너로 삼는 심리학은 결코 신학과 별개의 학문적 체계로 일대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해석학적 틀 안에서 재해석되는 것이다. 해석의 토대를 제공하는 틀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학문의 역사에서 취급되어진 “실천적 지혜”

(practical wisdom)를 추구하는 정신과학(Geisteswissenschaften) 즉, 문화적 과학 혹은 도덕적 과학의 관점이다.

두 번째 의무론적 차원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성찰이다. 여기서 현대 심리학이 제시하는 이상적이고 건강한 인간상은 도덕적으로 결코 중립적일 수 없는 “덕 윤리”(aretaic ethics), 혹은 “인격적 윤리”(ethics of character)의 측면으로 해석하여 상호 연관을 시도하고. 세 번째 성향-욕구의 차원은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느끼고 만족스러워 할 수 있는 다양한 인간의 성향과 욕구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로서 프로이트의 본능(id)이나 용의 원형(archetype) 등과 상호대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현대 심리학의 실천도덕적, 해석학적 접근이 엄밀히 말하면 심리학적이지 않거나 과학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하나의 심리학이 명백하게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매우 좋은 윤리적 비전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브라우닝은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네 번째 상황적 차원으로는 우리의 행동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상황은 무엇이고, 그것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다섯 번째 규율-역할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도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특정한 규율이나 역할, 혹은 의사소통의 과정들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상관관계를 성찰한다는 것이다.

그의 대표적 주저 중의 하나인《종교사상과 현대 심리학들》(*Religious Thought and the Modern Psychologies*)은 이러한 수정된 상관관계의 방법을 가지고 해석학적으로 다양한 현대 심리학을 재해석 한 좋은 본이 된다. 그는 이 책에서 제목을 “심리학”이 아닌 “현대 심리학”이라고 붙인 이유가 심리학은 20세기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잊혀지기 쉬운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밝힌다.<sup>9)</sup> 이는 다양한 고전적 형

---

9) Don S. Browning, *Religious Thought and The Modern Psychologies*. (Minneapolis: Fortress, 1987), 4.

태의 심리학이 존재하고, 이들은 서구 종교전통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스토아 철학적 인간이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인간이해를 비롯하여 헤겔과 키에르케고르, 하이데거, 화이트헤드가 보여준 인간이해의 심리학들의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는 철학적(philosophical) 심리학으로 현대의 과학적(scientific) 혹은 임상(clinical) 심리학과는 다분히 대조적인 전통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철학적 전통 아래에서 발전해오던 인간 심리의 이해가 20세기에 이르러 심리학이라는 학문으로 재편성되면서 “철학적” 성격을 넘어서 보다 과학적, 임상적이거나 실험적(experimental)으로 변모한 것이다. 브라우닝이 선별하여 보기 원하는 “철학적” 심리학은 단순히 사색적이고 추상적인 이성의 부산물이라는 측면보다는 인간 경험의 광범위한 영역을 탐구하는 측면에서 철학적이고 해석학적이며, 현대의 심리학들도 이러한 틀에서 또한 재해석될 수 있다고 믿었다.

20세기의 현대 심리학의 발전을 문화의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바로 그의 해석학적 관점으로 제시된다. 그의 문화의 정의 또한 그의 방법론적인 특징을 잘 드러낸다. 그에게 문화는 상징과 규범의 체계(a system of symbols and norms)이다. 즉, 한 사회나 집단을 세계관이나 인생의 목적, 혹은 최소한 삶의 목적하는 기본적인 몇 가지 원칙들의 모습을 제공하여주는 규범과 상징의 체계라는 것이다. 결국 “문화의 신학에서의 하나의 비판적 대화”(a critical conversation in the theology of culture)라는 저작의 부제가 말해주듯이, 브라우닝의 해석학적인 시도는 문화(규범과 상징의 체계)의 신학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며, 이에 현대 심리학이 비판적인 대화를 제공한다는 관점이다. 현대 심리학이 드러내는 4가지 상징과 규범의 체계(문화)는 분리(detachment), 기쁨(joy), 통제(control), 돌봄(care)의 문화이다.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분리의 문화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융과 인본주의 심리학들은 기쁨의 문화의 관점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스키너는 통제의 문

화와 에릭슨과 코핫은 돌봄의 문화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브라우닝은 이러한 현대 심리학의 문화가 현대 심리학이 가지는 과학적인 가치 제공의 측면을 넘어서 보다 긍정적인 문화의 종교윤리적(religious-ethical) 차원을 넘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종교적(기독교적) 사상은 이러한 4가지 심리학의 해석학적인 “문화”的 측면에서 접촉점과 유사점을 공유한다. 심리학이 엄격하게 과학적인 심리학의 측면만을 고수한다면 종교와 어떠한 대화 가능성도 요원하겠으나, 종교윤리적 차원을 가진 문화(상징과 규범의 체계)의 근원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종교적 사상과 함께 충분히 비판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브라우닝의 방법론에 등장하는 임상 심리학은 매우 혼합형의 학문(mixed disciplines)이다. 종교적, 윤리적, 그리고 과학적 언어의 실례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라우닝의 해석학적 관점에서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심리학들은 임상적이거나 실험적으로 이해되는 과학적인 심리학이기 보다는 “실천적 도덕철학”(practical moral philosophies)에 훨씬 가깝다. 신학과 그가 선택한 심리학들의 공통된 중심적 과제는 “해석”(interpretation)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브라우닝에게 분명히 심리학은 설명적(explanatory) 학문이 아닌 해석적(interpretive discipline) 학문으로 작용한다. 그가 제시하는 차이점이라면 임상 심리학은 인간의 개인적 삶(individual lives)을 해석하려고 시도하는 반면, 신학은 전체로서의 통전적 삶(life as a whole, in its entirety)을 해석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이다.<sup>10)</sup>

결론적으로 브라우닝의 목회신학의 방법론은 텔리히의 상관관계방법을 확장한 비판적 상관관계로 접근하는 비판적인 실천신학(a critical practical theology)이다. 그의 방법론은 텔리히의 상관관계방법과는 달리 정신과학의 다양한 방법론에서 규범적인(normative) 지평을 밝혀내고 해석학적으로 성찰하려는 시도를 진척시켜왔다. 특히 90년대 이후

10) 위의 책, 7.

그에 의해 진행된 “가족, 종교와 문화” 프로젝트는 신학의 여러 분야와 현대 심리학, 가족 연구, 사회학, 정치학, 철학 등의 인접학문들과의 보다 상호적이고 비판적인 상관관계의 방법으로 발전한다. 이는 많은 사회과학자들로 하여금 현대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첨예한 관심의 진원지인 가족해체의 위기라는 문제에 그의 실천신학적 접근이 가장 포괄적이고 의미 있는 해답을 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기존의 교회 중심적 목회신학에 비하여 공적인 의미를 가진 그의 비판적인 실천신학(a critical practical theology)은 비판적 문화신학(a critical theology of culture) 위에 형성된다는 그의 연구관심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그의 비판적 해석학의 틀 안에서 신학의 제 분야와 다양한 사회과학은 해석되어야 하는 “문화적 현상”(cultural phenomena)인 것이다. 그의 해석학적인 상관관계의 방법은 그가 제시한 5가지 실천적 도덕적 차원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로 진행될 때 진정한 실천이 된다.

### III. 브라우닝의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적 상황에 대한 암시점

브라우닝의 은퇴를 기념하여 기획된 미국종교학회 내의 심포지움은 5명의 다양한 별제자들을 중심으로 기획되고 준비되었다. 브라우닝이 가장 존경하는 동료 중의 하나인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Graduate Theological Union)의 흑인 목회신학자 아치 스미스(Archie Smith, Jr.)와 브라우닝의 두 제자들이 선정되었다. 벤더빌트 신학대학원의 보니 밀러맥니모어(Bonnie Miller-McLemore)와 패시픽 유니온 대학(Pacific Union College)의 그레고리 슈나이더(Gregory Schneider)가 선정되었는데, 여성과 남성, 신학대학원과 일반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가르치는 이들로 다양한 그들의 상황적 관점을 반영하고자 기획하였다. 그리고 브라우닝과 “종교, 문화와 가족 시리즈”를 함께 편집한 이안 에

비슨(Ian Evison)이 학계가 아닌 현장을 대표하는 학자로 선정되었고, 필자는 타문화권에서의 목회신학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학자로 선정되었다.

우선 이 심포지움에서 거론된 브라우닝의 주요한 학문적 공헌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힐트너의 목회신학적인 연구의 전통을 공고히 하고, 최초의 종교심리학자로 여겨지는 윌리암 제임스(William James)의 철학적 심리학의 연구 전통, 다시 말해 인간의 종교 경험을 가장 근본적인 학문적 과업으로 하는 전통을 더욱 확대시킨 점을 들 수 있겠다. 두 번째의 공헌으로는 그는 가장 성공적으로 아주 많은(물론 모두는 아니지만) 일반 심리학과 사회과학의 학자들에게 종교 윤리적 성찰에 대한 도전을 던져 준 것을 다양하게 언급하였다. 그는 2004년 『종교사상과 현대 심리학들』의 개정판을 내면서는 일반 심리학자 테리 쿠퍼(Terry Cooper)와 공동으로 출판하기도 하였다. 세 번째의 공헌으로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는 것은 무엇보다 브라우닝의 최근 진행시킨 “가족 프로젝트”였다. 특별히 그는 그동안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해오던 가족과 종교 및 문화를 연결하여 성찰하는 연구과제를 학계에 제시하면서, 목회신학의 학제간 연구가 “성직자, 교회중심 패러다임(clerical and ecclesial paradigms)에서 보다 “공적인 패러다임”(public paradigm)으로 어떻게 사회 전체에 공적인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특별히 이 공적인 패러다임의 뼈대로 제공되는 실천적 도덕적 성찰은 일부 보수주의 계통의 교회나 학문에서 심리학이 무비판적으로 종교와 신학을 대체하는 치유적 목회나 연구 방향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이제 심포지움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브라우닝의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하여 논하면서 한국적 상황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고자 한다. 필자를 비롯한 발제자들의 일부는 간혹 제기되어 온 브라우닝의 해석학적 방법론의 추상성을 언급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필자는 아치 스미스(Archie Smith, Jr.)나 임마누엘 라티

(Emmanuel Lartey)와 같은 해방신학적인 목회신학자들에게서도 드러나는 해석학적 접근과는 두드러지게 프락시스(praxis)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하는 방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영국의 여성 목회신학자 엘레인 그래함(Elaine Graham)은 브라우닝의 해석학이 해방적인 프락시스(emancipatory praxis)와는 거리가 먼 구조임을 지적하고, 미국의 여성주의 목회신학자들은 그의 비판적 상관관계의 방법과 해방적 관점을 연결시키는 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sup>11)</sup>

결국 브라우닝의 해석학에서 그는 너무도 자주 그가 좋아하는 유럽의 철학자들, 혹은 철학적 신학자들(예를 들면, 가다머, 하버마스, 리쾨르 등)에 학문적 천착을 하게 됨으로서, 결국 서구적 개인주의 전통에 대한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지는 한계를 품게 된다. 그가 가족 프로젝트를 통하여 미국적인 개인주의의 전통과 서구의 시장 논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하는 것은 물론 개인보다는 사회와 문화적 시각을 지향하는 공적(public)이고, 체계적(systemic) 사고로의 전환이라고 학자들은 그를 변호하지만, 필자는 그가 결국 한 개인의 삶의 주기(life cycle)와 관련된 주제(출생, 결혼, 가족, 이혼, 개인주의적 인격 등)로 연구의 “출발점”(starting point)을 삼는 것은 여전히 타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상황적”(contextual)이고 “특정한”(particular) 주제에 대한 관심은 늘 뒷전에 있게 된다. 말하자면 흑인 목회신학자들의 경우, 간혹 연구주제의 출발점을 보다 상황적이고 특정한 경험들로 출발점을 삼는 것과는 과거 대조적이다. 아치 스미스가 제시하는 흑인들의 “집단적 영성”에 대한 주제라든지, 흑인 여성목회신학자 캐롤 왓킨스 알리(Carroll A. Watkins Ali)의 경우에 제시되는 “생존과 해방”的 주제를 들 수 있겠다.<sup>12)</sup>

---

11) Elaine Graham, *Transforming Practice: Pastoral Theology in an Age of Uncertainty*. London: Mowbray, 1996; Bonnie Miller-McLemore, and B. Gill-Austern, (Eds.), *Feminist and Womanist Pastoral Theology*. Nashville: Abingdon, 1999를 참조하라.

브라우닝은 그의 해석학적 방법론에 나타난 추상성에 대한 비판을 다음과 같이 응답한다. 브라우닝은 그의 해석학을 리퍼트가 명명한 “비판적 해석학”(critical hermeneutics)이라고 정의하면서, 비판적 해석학은 그 용어 자체로 누구에게나 끔찍하게 두려운 철학적인 무게로 다가오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용어의 정의(definition)를 자세히 이해하고 나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심포지움에서 그가 지난 15년 이상의 연구와 저작을 통해서 집중하여 온 “비판적 해석학”은 그에게는 인간 이해의 이론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이었다고 고백한다. 이 이론은 그에게 학제간 연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과학적 객관성의 문제를 보다 뒷전에 두고 보다 대화와 소통을 위한 상호질문과 해답의 과정을 가능하도록 도왔다고 지적한다. 해석학은 흔히 우리가 접하는 본문이나 사건 등을 우리의 문화를 구성하는 상황을 바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비판적 해석학의 도움이 없이는 브라우닝은 과학적인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문들, 심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들을 하나의 “종교문화적 창조성”(religiocultural creativity)의 산물로 보고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항변한다. 이 다양한 학문들 가운데 나타나는 창조성은 서구 사회의 종교문화적 비전, 특별히 유대교와 기독교에 나타난 인간 이해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필자는 브라우닝이 논하는 종교 문화는 결국 서구문화에 한정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문화 이해가 규범의 체계이고, 의무론적 윤리 뿐 아니라 소통을 향한 덕 윤리(ethics of character)의 관점을 견지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문화권의 규범과도 상호대화의 틀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문화에 너무 규범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다름”(difference)과 “독특성”(particularity)을 토대로 한 인류학적 의미의 문화가 설 곳이 없다는

- 
- 12) Archie Smith, Jr., *Navigating the Deep River: Spirituality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Cleveland, OH: United Church Press, 1997; Carroll A. Watkins Ali, *Survival & Liberation: Pastoral Theology in African American Context*. St. Louis: Chalice Press, 1999.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이는 결국 그의 다원화시대를 위한 목회신학이 문화의 다원성 혹은 종교의 다원성의 문제를 너무 포괄적으로, 혹은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 사고로 단순화시키는 오류를 안게 된다.

무엇보다 브라우닝의 방법론에 대한 결정적인 한계와 보완점은 아치 스미스에 의해 제기되었다. 스미스는 브라우닝의 비판적 해석학에서 힘과 권력에 대한 분석(analysis of power)이 도외시되어 왔다고 지적 한다. 예를 들어, 브라우닝의 방법론에는 권력이 없는 개인이나 집단은 힘을 가진 이들의 도덕적 종교적 기준들에 의해 쉽게 억압당하는 현실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권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볼 때에 우리는 미국 사회에서 권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들은 소수인종인 경우가 많고, 비기독교도이기 쉽다는 점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결국 다원화시대의 공적인 신학을 추구하던 브라우닝은 결국 종교문화적인 다원주의(pluralism)를 포용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게 되면서 억압과 차별을 다룰 수 없는 방법론으로 전락한다.

이에 대하여 브라우닝은 스미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가족 프로젝트”를 위한 공저<sup>13)</sup>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은 권력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예를 들면, 결혼과 가정에서의 평등권을 언급하면서 남편, 아내, 자식들과 주변의 경제적 기관이나 정부기관들과의 권리 관계(power relations)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비판적인 가족주의”(critical familism)를 위한 숨겨진 장애와 저항들을 밝혀내는 과정이 제시되었다는 것이다.<sup>14)</sup> 그러나 브라우닝의 저작이 1966년부터 시작되었으니, 이러한 분석은 실로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하여 브라우닝은 자신이 결국 억압적인 권력이나 부당한 권력을 식별하는데에 있어서 무엇보다 사려 깊은 윤리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13) Don S. Browning, B. J. Miller-McLemore, P. D. Couture, K. B. Lyon, and R. M. Franklin, *From Culture Wars to Common Ground: Religion and the American Family Debat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7.

14) 위의 책, 2.

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답변하면서, 그가 제시한 5가지의 실천적 도덕적 성찰이 권력의 문제나 다양한 종교문화가 만들어 내는 다원주의의 문제를 윤리적으로 선별하고 분석하기 위한 틀로 제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안식일 교도인 백인교수가 유교문화권에서 자라난 동양학생을 가르칠 때에 기독교적 관점을 제시하고 사회과학이 종교와 비판적으로 대화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종교의 다름이나 힘의 불균형이 아니라, 교수가 동양학생이 다양한 사회과학을 자신의 고유한 종교문화 전통과도 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을 보여주는 데에 있다는 점이다. 이 때의 비판적 해석학은 교수와 학생, 교수와 그가 사용하는 사회과학, 그리고 학생들과 그들이 배우는 사회과학 사이의 대화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자신의 해석학적 방법론이 “상호문화적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을 다를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필자는 브라우닝의 방법론이 미국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자와 화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한국적 상황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관심하여 왔다. 브라우닝의 방법론적 접근은 종교와 심리학 사이를 중개하고, 교회와 학문 사이나 정신의학과 목회 사이, 혹은 실천신학과 다른 신학의 제 분야 사이에서 의미 있는 가교의 역할을 하여 왔다. 이러한 중개적 역할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도 가능 할 수 있을까? 미국 사회와는 달리 한국적 문화에서는 분명히 심리학이나 심리치료가 문화적 산물이 아니다. 미국 문화에서도 이제 더 이상 심리학이나 심리치료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마력(mojo)을 잃어가고 있다고 학자들은 지적한다. 우리가 소통하고 대화적으로 해석해내야 할 종교문화적 산물은 무엇인가? 심포지움에서는 밀러맥니모어에 의하여 비슷한 실용적 질문이 제시되었다. 미국 사회에서의 종교와 심리학 분야의 쇠퇴나 목회신학 분야 교수진이 대거 은퇴하는 21세기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대화적 실천신학 운동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다.

브라우닝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확고히 대답한다. “비판적 해석학”의 방법이 계속적으로 신학교나 교회에서와 종교와 심리학 연구 분야(4가지 세부 연구 분야를 말하자면, 목회적 돌봄, 종교심리학, 신학과 심리학의 대화, 그리고 문화연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실천은 이론을 담지한다. 그러므로 나쁜 실천들은 그 안에 나쁜 이론들을 담고 있다는 말이다. 브라우닝은 비판적 해석학이 이러한 나쁜 이론들을 드러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이는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에 밀착된 인간에 부적절한 비전을 담고 있기에 어느 문화권에서도 그 윤리적 선별의 작업이 가능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필자는 간혹 한국적 상황에서도 목회적 행위에 밀착된 부적절한 비전을 담은 심리학을 발견한다. 때때로 이러한 심리학은 한국의 고유한 종교문화의 창조성을 반영한다. 인간에게 교회가 치유의 장이 되고, 그리스도는 마치 하늘의 심리치료사, 아니 귀신을 쫓는 엑소시스트가 되는 비전이 그것이다. 21세기 한국교회는 치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필립 리이프(Philip Rieff)는 이미 60년대에 기독교가 “자가 치료적 체계”(self-help therapy)로 변질되어 갈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sup>15)</sup> 구원은 그저 심적인 건강으로 축소되고, 하나님의 모습도 각종 질병을 고치시는 만능치료자의 모습이 지극히 강조된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심리학을 하나의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결국 만병통치약이나 좋은 치료사나 의사(혹은 무당)를 찾아 나서는 내담자들의 취사선택의 장소가 된다. 심리학적 치유가 복음을 대신할 뿐 아니라, 목회상담 마저 상담적이기만 하지 목회적이지 않다.

이에 우리는 보다 선별과 성찰을 위한 방법이 필요한 때라고 여겨진다. 브라우닝의 해석학적이고 도덕적 성찰을 바탕으로 한 상관관계방

15) Philip Rieff, *The Triumph of the Therapeutic: Uses of Faith after Freu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6.

법이 우리에게 분명한 암시점을 제공한다고 본다. 21세기에 한국교회는 치유의 시대와 더불어 윤리적 성찰의 시대를 살아내야 한다. 예수가 우리에게 구세주인 이유는 한 개인의 아픔을 깨끗이 치유해주는 마술적 치유자이기보다 고난 받는 민족의 역사 안에 함께 고통 받으시는 십자가의 주이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Browning, Don S. *Atonement and Psychotherap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6.
- \_\_\_\_\_. *Generative Man: Psychoanalytic Perspectives*. New York: Delta, 1975.
- \_\_\_\_\_. *The Moral Context of Pastoral Care*. Philadelphia: Westminster, 1976.
- \_\_\_\_\_. *Pluralism and Personality: William James and Some Contemporary Cultures of Psychology*. Lewisburg, PA: Bucknell University Press, 1980.
- \_\_\_\_\_. *Religious Ethics and Pastoral Care*. Philadelphia: Fortress, 1983.
- \_\_\_\_\_. *Pastoral Theology in a Pluralistic Age*. In D. S. Browning (Ed.), *Practical Theology: The Emerging Field in Theology, Church, and World* (pp. 187-202).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3.
- \_\_\_\_\_. *Religious Thought and the Modern Psychologies*. Minneapolis: Fortress, 1987; 2nd Edition: co-authored with Terry Cooper, 2004.
- \_\_\_\_\_. *Mapping the Terrain of Pastoral Theology: Toward a Practical Theology of Care*. Pastoral Psychology 36 (1987): 10-28.
- \_\_\_\_\_. Pastoral Care and the Study of the Congregation. In J. C. Hough, Jr. and B. Wheeler, *Beyond Clericalism: The Congregation as a Focus for Theological Education* (pp. 108-118). Atlanta, Georgia: Scholars Press, 1988.
- \_\_\_\_\_. *A Fundamental Practical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 \_\_\_\_\_. The Past and Possible Future of Religion and Psychological Studies. In William B. Parsons and Diane Jonte-Pace (Eds.), *Religion and Psychology: Mapping the Terrain* (pp. 165-180).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1.
- \_\_\_\_\_. An Ethical Analysis of Erikson's Concept of Generativity. In Ed de St. Aubin, Dan P. McAdams, and Tae-Chang Kim (Eds.), *The Generative Society: Caring for Future Generations* (pp. 241-257).

-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3.
- \_\_\_\_\_. *Marriage and Modernization: How Globalization and Modernity Threaten Marriage and How it must be Reformed to Meet the Challenge*. Grand Rapids: Eerdmans, 2003.
- Browning, Don S., & Gloria Rodriguez. *Reweaving the Social Tapestry: Toward a Public Philosophy and Policy of Families*. New York: W.W. Norton, Inc, 2002.
- Browning, Don S., Miller-McLemore, B. J., Couture, P. D., Lyon, K. B., and Franklin, R. M. *From Culture Wars to Common Ground: Religion and the American Family Debat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7; 2000.
- Browning, Don S., Katherine Anderson and Brian Boyer. Eds. *Marriage-Just a Piece of Paper*.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2002.
- Browning, Don, S., John Wall, William Doherty, and Stephen Post. Eds. *Marriage, Health, and the Professions*.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2002.
- Graham, Elaine. *Transforming Practice: Pastoral Theology in an Age of Uncertainty*. London: Mowbray, 1996.
- Hunter, Rodney J. *The Future of Pastoral Theology*. *Pastoral Psychology* 29 (1980): 58-69.
- Miller-McLemore, Bonnie and B. Gill-Austern. Eds. *Feminist and Womanist Pastoral Theology*. Nashville: Abingdon, 1999.
- Smith, Jr., Archie. *Navigating the Deep River: Spirituality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Cleveland, OH: United Church Press, 1997.
- Rieff, Philip. *The Triumph of the Therapeutic: Uses of Faith after Freu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6.
- Watkins Ali, Carroll A. *Survival & Liberation: Pastoral Theology in African American Context*. St. Louis: Chalice Press, 1999.

#### Key Words:

단 브라우닝, 해석학, 목회신학, 실천신학, 윤리적 성찰

Don Browning, hermeneutic, pastoral theology, practical theology, ethical reflection

## Don Browning's Pastoral/Practical Theological Method

Soo-Young Kwon

Pastoral theology is a form of theological reflection in which pastoral experience serves as a context for the critical development of basic theological understanding. This article proposes the need for constructing a critical model of pastoral/practical theology that more adequately addresses ethical and public meanings in our era by critically reviewing Don Browning's theological method.

In this paper, I first review that a significant shift in the subject matter of pastoral theology and care toward public theology has occurred in Don Browning's theological method in the last decade. Browning has assured Seward Hiltner's legacy of the study of pastoral and practical theology specifically and hermeneutical methods in Western moral philosophy. In doing, he successfully persuaded some, not all, secular theorists in psychology and other social sciences to ask good questions about religious and ethical assumptions. More recently, Browning has helped put the family and religion not only on the agenda of many theologians, where it had been largely ignored, but also on the wider public agenda in social sciences.

This paper points to the analysis of power, which is somewhat neglected in Don Browning's work. Those individuals and groups without power can be easily oppressed by the moral and religious standards of the powerful. Those without power also may be marginal minorities in mainline society. In closing, this paper implicates those issues for Korean context. If it is true that Browning's practical theology over the years has neglected the issues of power, it indeed would be a major defect. And yet, his method will help us develop an ethic to strengthen cultural analysis and interdisciplinary work in pastoral care, pastoral/practical theology, and the dialogue between social sciences and theology.